

암보다 무서운 병

유 회 현 · 유희현 산부인과 원장

“자궁암입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들른 중년의 여인은 뜻밖의 암 선고를 받아 참담한 심정이 되었다.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이런 거구나. 느닷없이 닥친 불행에 망연자실하면서도 맨 먼저 눈앞에 남편이 떠올랐다.

그녀는 남편만이 자신을 지탱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남편만 곁에 있다면 병이 저절로 나을 것만 같았다.

“자궁경부암 1기입니다. 자궁만 들어내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의사는 천만다행으로 자궁암이 위험한 지경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한 덕에 암세포를 조기발견 할 수 있었던 셈이다. 대신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했다.

의사는 질을 약간 잘라내야 하고 자궁을 들어내야 하지만 부부관계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말에 안심했다. 아이까지 다 낳았으니 문제는 더욱 가벼워졌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자신의 고통인 양 슬퍼해 주었다. 함께 끌어안은 채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른다. 애정 어린 남편의 격려로 용기를 얻어 바로 수술 시간을 잡았고 남편의 손을 잡고 수술을 받으러 갔다. 그러나 정말 몰랐다. 암 선고는 앞으로 닥칠 더 무서운 고통의 전주곡에 불과했던 것이다.

자궁이 없어진다는 상실감은 그녀로서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살기 위해선 이만한 고통쯤은 감내해야 한다고 남편은 위로했다.

자궁이 없어진다는 것, 단지 그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는 대신 실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려야 했다.

수술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성 관계도 다시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남편이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갑자기 관계를 멈추더니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를 피웠다.

그녀는 모욕감에 어쩔 줄 몰랐지만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묻지 못했다. 다음날도 남편은 관계를 하다고 말고 중간에 멈추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은 아예 부부관계를 포기한 듯했다.

남편은 고급 공무원으로 말수가 적고 성실하며 정적인데 아내에게도 배려하고 아껴주는, 나무랄데 없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수술 전에는 일주일에도 보통 두 번 정도 관계를 가졌고 언제나 만족감을 느꼈다. 한마디로 애정이 돈독한 편이었다.

수술을 받고 난 뒤로는 제대로 부부관계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의사를 찾아가 하소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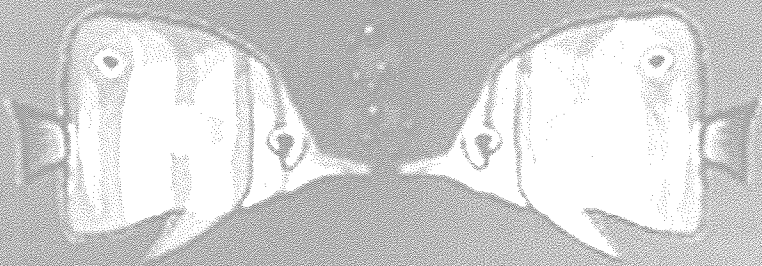
“수술 전에, 자궁적출 후에도 부부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의사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부부관계가 전보다야 좋을 수는 없지만 서로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의사의 말과는 달리 이들 내외는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남편의 무관심은 갈수록 더했고 그럴수록 그녀에게는 남편에 대한 미움이 쌓였다. 노골적으로 신경질을 부렸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투정이 섞인 그런 신경질이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전에 없이 신경질적인 아내에게 년덜머리를 냈고 급기야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아내는 하루는 날을 잡아 따져 물었다. 이렇게 된 것도 서러운데 당신마저 냉정하게 외면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당신,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슬픔에 북받쳐 마음에 없는 말도 해버렸다.

이렇게 무관심하고 몰인정한 당신과는 살 수 없어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조용히 듣고만 있



던 남편은 마치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 나도 많이 노력했어. 당신과 섹스가 불가능해진 걸 알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고.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엄연한 현실이야. 나나 당신이나 더 비참해지기 전에 서로가 편한 길을 찾자구.

처음에는 남편의 대꾸가 믿어지지 않았다. 이혼을 하겠다니. 한 이불 속에서 14년이나 몸을 비비며 살아온 사람이 맞는가. 무엇을 믿고 아이들을 낳았으며 무슨 희망으로 고생을 감내하며 살아왔던가. 파도처럼 밀려든 절망에 그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남편에게 이토록 이기적인 면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이전 가망이 없다고 여겨지자 그날로 남편과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여자도 사귀고 있던 모양이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딸의 이혼에 친정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찢어진 마음을 달랠 사이도 없이 그녀는 어머니 병간호에 매달려야 했다.

이 환자는 암이라는 병과 가족의 무관심, 남편의 냉대가 원인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절망적인 상태로 내몰리고 말았다. 그녀가 찾아왔을 때는 이미 황폐해

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지 못한다는 암은 극복하였으나 오히려 충분히 노력하면 치유 가능한 부위간의 인위적인 갈등은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요즘은 상담 기관도 많고 성 기능 장애 전문병원도 있어 초기에 암을 잡은 것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문제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여서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여성은 자궁 적출 후에는 여성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시달리게 된다. 신경이 예민해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기 십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남편의 꾸준한 관심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로 상담을 해오는 환자가 많은데 신경 정신과 상담과 질을 수축하는 수술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 관심만 가지면 무슨 일든 대체로 해법이 있다. 이 환자는 암은 고쳤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을 못 고쳐 쓸쓸하고 힘겨운 중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를 공감하지 않고 외면하는 무관심과 모든 원인을 당사자에게만 짐을 지우는 이기심이다. 인간이 만든 병은 암보다도 더 무섭다. 72